

기관탐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이 경 희 / 보건관리자

때 이른 겨울의 문턱에 선 아침, 본 회 대전충청지부장을 재임(在任)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산업 간호사로 정평이 나있는 이 경희 선생님이 근무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가기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전 유성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무성한 잎사귀로 풍성함을 자랑하던 도로의 가로수도 어느새 앙상함으로 겨울맞이 채비에 들어섰고, 차창 밖 무심히 지나쳐가는 하늘도 산도 늦가을을 벗고 다가올 계절의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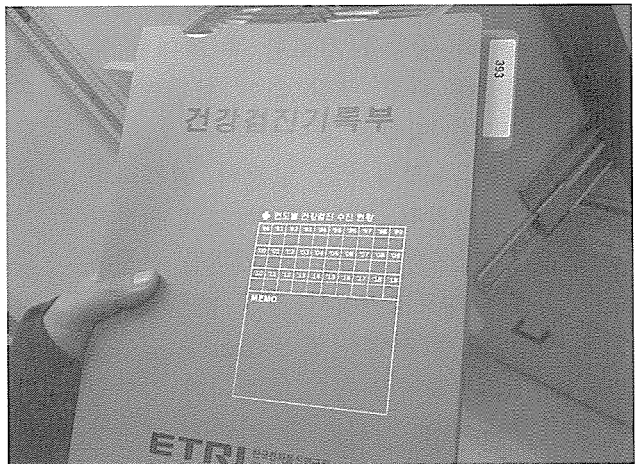
두 시간 삼십분을 지나 잘 정비되고 도심의 향기가 아닌 자연과 교육의 내음으로 어우러진 대전의 유성에 도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갈아탔다. 십 여분 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문에서 사내로 들어가기 위한 수속을 마치고 건강관리실을 방문했다. 굽실거리는 단정한 웨이브 머리에 자주 빛 정장이 잘 어울리는 밝은 미소의 이 경희 선생님이 건강관리실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IT핵심기술

의 창조적 개발로 국가와 인류번영에 기여하려는 비전아래 21세기 세계 최고의 IT R&D기관을 실현하려는 경영 목표를 가진 정보 통신관련 지적 재산의 보고로, 대덕연구단지 소재 기관의 특허 출원 건수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국책 연구기관이다.

현재 264개의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창업기업은 4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재 2천 5백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이경희 선생님 혼자서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그러나 문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기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관리실은 35평 규모로, 원장실 보다 규모가 크다고 살짝 귀뜸해 주신다. 처음 5평 규모에서 시작한 건강관리실은 일주일에 두 번 관할 내에 있는 을지의대와 선병원에서 전문의가 건강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치된 상담실과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처치실, 간단한 상담과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남녀로 구분된 2개의 안정실(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편안한 색상으로 꾸며져 있었다), 필요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실 가까이에 설치한 자가 치료기 보관창고, 그리고 2,500여개의 개인화일철을 보관한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료실의 개인화일철은 장소를 많이 차지하게 되자 기획안을 작성하여 4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였다. 개인화일철<사진1, 2>은 입사개인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입사이후 건강검진



<사진 1, 2>

결과표·의사 상담 결과지·기타 검진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입사 년 수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의 자료도 확인 가능하도록 편철되어 있었다. 이 경희 선생님은 컴퓨터 기록도 중요시 여기나 이 자료철을 더 신뢰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건강관리실 업무 중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육 뒤의 천태산 등반을 40여 분간 실시하고 점심을 먹는 일은 중요한 하루 일과라고 하였다. 수년전 일반검진 결과 요주의관찰자로 판정된 연구원들에 대하여 건강관리방법의 일환으로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점차 체중관리가 되고 검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 연구원들의 기초체력이 향상되자 꾸준히 등반에 참여한 매니아층도 생겨 일상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게 되었다.

건강관리실의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는 역시 일반·특수건강진단 실시와 작업환경 측정, 독감예방접종, B형 감염 예방 접종 등 연구원과 일반직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500여명의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인터넷을 활용 '제안마당'을 개설하여 보건관리 활동을 검토한 후 최대한 직원들이 편안해 하고 부담 없이 보건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사업 기안을 작성하고 일정이 결정되면 2,500여명과 직원의 가족 1,000여명이 원활하게 검진받기위해서 4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주고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선택한 후 E-mail로 접수를 받는다. 검진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접수순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과 그 가족들이 가장 검진 받기 좋은 시간을 상담한 후 일정별로 구분하여 기록해둔다.

검진 일정이 확정되면 전산 팀과 업무 협조를 이루어 일정기간동안 직원과 가족들이 의료기관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변경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둔다. 확정된 검진에 대해서는 E-mail을 전달 그리고 당일 아침에 다시 보내주고 그래도 잇은 직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하루 10~25여명이 검진을 위한 대기시간이 5분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검진을 실시한 후 기관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차후에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검진이 마무리되고 결과를 통보받

게 되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보고서를 작성한다. 매년 검진결과에 대한 분석은 검진대상자, 요주의관찰자, 유질환자에 대해 3년 전 통계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건관리 업무의 향상을 위해 활용한다.

집단보건교육은 근무여건상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개별 상담을 가장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업무특성 상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 연구원에 맞는 교육 리플렛을 자체 제작하여 홍보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직원의 편의를 위해 유소견 결과에 대한 처방까지 원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노력은 노조사무국장 등 연구원 내 각계각층의 핵심인사들이 스스럼없이 이 경희 선생님을 '누님'이라고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새벽 2시에 코피가 나서 멈추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그 시간에 연락을 받고 주저 없이 걸음으로 같이 입고 동행을 해줄 사람을 떠올리라면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편안한 누이를 떠올리고 한다. 기관탐방 기사를 위한 인터뷰 시간에도 건강관리실의 문은 끊임없이 열리고 닫힌다. 연구원, 직원뿐 아니라 파견된 용역 직원들까지 들어올 때와 나가는 발걸음의 소리가 다르다.

사업장의 요구하는 전담인력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친절함과 자상함이 배어있는 누이 같은 보건관리자가 근무하는 한국전자통신원의 건강관리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강물 따라 흐르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결에 역류하여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힘찬 물 가름이 연상되는 현명한 산업간호사의 모습에 흠족한 미소를 띠며 기관탐방을 마치고 만족한 발걸음을 재촉하여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